

# '달빛 풍류, 금빛 야행' 김제 문화재 야행

8~10일 사적 김제군 관아·향교 일원서 공연·전시·체험·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사적 김제군 관아와 향교 일원에서 2023년 김제 문화재 야행을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 개최되는 이번 야행은 '달빛 풍류, 금빛 야행'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마켓 등 다채로운 80여(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김제향교 민화부에서 펼쳐지는 '달빛 풍류 한마당'과 '미디어 파사드', 행사장 전역을 누비는 스탬프투어 '김제 남승도놀이'와 김제내야 야마당에 떠오른 '월하나라사' 등이 있다. 또한, 김제관아 내 '피금각, 披(해칠 피) 襟(웃깃 금)'의 '웃깃을 풀고 허심탄화하게 마음을 나눈다'라는 의미를 살린 풍류 공연과 김제내야에서 생생하게 들려주는 정담 장군의 이야기 등 문화유산이 소재한 역사성과 지역성을 다양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조선시대 지방행정기관과 지방교육기관이 함께 참모습 그대로 보존된 사적 김제군 관아와 향교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 속에서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사적 김제군 관아와 향교 일원에서 2023년 김제 문화재 야행을 개최한다.

한편 대상 문화재인 보물 '김제내야'는 지난해 전국 내야 중에서는 최초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일제강점기 이후 대

부분 내야가 멸실된 것에 비해 현재까지도 원형을 보존해 보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제=곽도태 기자

##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오는 9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남원시립소년합창단(지휘자 김종희)의 제30회 정기연주회 음악극 '기분 좋은 상상'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뮤지컬 전문기획체인 '한스뮤직드라마'가 기획하고, 모모에게말걸기 작은도서관(관장 임숙자)의 어린 시인들이 만든 어린이 시와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결합한 순수한 하모니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남원지역 어린이들이 창작한 시를 기반으로 하는 어린이 문화를 결합한 공연 추진으로, 남원만의 색깔을 담은 순수한 음악극 공연 관람 기회를 마련하고,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남원에 인구 유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연 티켓은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배부되며 공연 시작 30분 전부터 공연장 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공연 시작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문화예술과(063-620-683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숙 문화예술과장은 "매년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정기공연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시민분들에게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지역 공연문화를 활성화시키고 훌륭한 문화예술 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 '우리는 한지골에 산다' 운영

전주천년한지관, 서서학동 주민 연계 프로그램... 이론 교육·탐방 진행

전주천년한지관이 서서학동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는 한지골에 산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8월과 9월 두 달간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한지 보전과 계승, 전통한지 문화의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 한지관 기획 프로그램으로, 1~2회차는 한지관에서 3회차부터는 서서학동 곳곳에서 탐방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지난달 1~2회차에서는 전주시와 서서학동 관련 역사 및 장소에 관한 이론 교육을 진행했다. 이달부터 진행되는 3~4회차에는 직접 흑석골 현장을 탐방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3회차(7일)에는 중요 문화재적 장소인 흑석담장을 비롯해 고궁한지, 두무소, 전의 이씨제실, 비락초, 흑석사, 전주 이씨제실, 고대 고분을 찾아 각각의 장소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 4회차(14일)에는 전주미래유산 30호인 보광재 옛길을 탐방하고, 마지막 5회차(21일)에는 한지관에서 전통한지 제조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5월 개관 이후 전통한지 보전·



계승과 확산을 위해 은빛 한지의 밤, 닥두지 재현 마을 큰잔치 등 흑석골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전주천년한지관은 이번 '우리는 한지골에 산다' 교육을 통해 서서학동의 문화·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한편, 한지관을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김도영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일반적 교육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며, 만들어가는 주민 연계 프로그램"이라며 "주민 모두가 흑석골과 한지의 홍보대사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무주반딧불축제서 '몽연-서동의 꽃'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 오늘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등나무운동장서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7일 저녁 7시 무주반딧불축제 등나무운동장 야외무대에서 '몽연-서동의 꽃'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시군 대표 축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공연콘텐츠를 지원해 균형적인 지역문화 향유와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연예술과 함께하는 전북관광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재단에 따르면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해 전북예술회관 공연장에서만 진행되던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몽연-서동의 꽃'을 야외로 무대를 옮겨 관람객을 만난다.

특히 축제 기간에는 '몽연-서동의 꽃'의 특별 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축제에 다녀



온 관람객이 전북예술회관에 방문해 축제 리플릿, 촬영사진 등을 제시하면 16일까지의 공연에 한해 티켓 50% 특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은성 기자

## 국립무형유산원, 파리 '메종앤오브제' 참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한국문화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7~11일까지 프랑스 파리 노르빌랑트(Nord Villepinie, Paris)에서 개최되는 인테리어 박람회인 '2023 메종앤오브제(Maison&Objet 2023)'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메종앤오브제는 1995년부터 시작된 유서깊은 세계 최대의 인테리어 박람회로, 2,300여 개가 넘는 기업이 참가하고 6만 5,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016년부터 참가해 한국 전통공예에 현대적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한 전통공예품을 선보였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더 뉴 호롱(The New

Horong) 시리즈(국가무형유산 침선장 보유자 구혜자, 권·모 디자인 대표 권종모), △'정합'(국가무형유산 유기장 이수자 이지호, 디자인주 대표 김주일), △'책면누비\_스물'(국가무형유산 누비장 이수자 최재희, 스튜디오 오리진 대표 서현진) 등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와 현대 디자이너가 협업하여 전통공예를 재해석한 공예품 45종과 △'누비 답초조끼'(국가무형유산 누비장 보유자 김혜자), △'높은 의자\_이강'(국가무형유산 소목장 이수자 유진경), △'신생아 쇠뿔베개'(국가무형유산 침선장 전승교육사 박영애) 등 지난해 '전승공예품 인증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종 등 총 139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친환경 캠페인 '클린마블' 운영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이 친환경 캠페인 '클린마블'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총 5회에 걸쳐 7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팀별 미션을 수행하는 보드게임 부부마블 형식을 빌린 '클린마블'이라는 주제로, 도내 관광 명소 5곳에서 추진된다.

먼저 전주에서 진행된 1회차에서는 30명이 참여해 조별 플로깅 및 비건 식당과 카페 탐방 그리고 독립서점 등을 돌며, 친환경 명소 발굴을 통한 전북의 친환경 여행문화 홍보에 나섰다.

이어 갈매밭으로 유명한 장수 장안산에서 진행된 2회차에서는 도내·외 신청자 25명이 명사 탐방을 통한 친환경 ESG 실천 활동으로 42kg에 달하는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한 주운

쓰레기로 정크아트를 제작해 SNS에 공유하며, 전국 각지로 알렸다.

특히, 오는 9일 남원 반선마을에서 진행되는 3회차에서는 문화와 역사가 깃든 로컬 마을탐방을 통해 클린트레킹과 야생화 공예 및 농장 체험 활동을 펼친다. 이는 청정 전북에 대한 여행인식 제고 및 농촌 가치를 체험하고 지역을 살리는 공정여행의 일환이다.

마지막으로 4·5회차는 진안과 남원에서 1박 2일 백패킹 및 LNT 교육 그리고 환경 단편영화 감상 등이 전개될 예정이다.

이 밖에 온라인 이벤트로는 전북 '클린마블' 캠페인 운영지 5곳과 그 외 도내 친환경 명소를 방문한 후, 클린하이킹 인증 샷을 업로드하거나, 클린마블 후기 이벤트에 참여하면 다양한 상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고훈을 주는 곳이다.



### 전주매일 캠페인